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김 순 구* · 이 미 련*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강국으로서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OECD국가의 평균인 10.2명보다 높은 24.9명으로 4년 간 연속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보통신부뉴스, 2005).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과 활성화 노력으로 인하여 2005년 6월 현재 인터넷 이용률은 71.9%이며, 이용자 수도 3,257만 명에 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이제 인터넷은 우리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생활도구가 된 만큼 인터넷이 우리생활 깊이 파고들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97.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아동 및 청소년은 주로 오락과 게임위주의 흥미욕구충족, 각종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획득, 스트레스해소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이세용, 2001).

인터넷 사용은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이용한 자료 확보방법보다 시간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입시위주의 경쟁사회에서 학교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적당한 놀이방법이 없는 학생들이 오락과 게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직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그 어느 연령층보다 인터넷 역기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얻어 만족감을 느끼고, 많은 사이버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와는 점점 멀어지며 인터넷 세계가 현실보다 좋은 대리만족의 세계가 되어 인터넷세계에서의 모든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다(Markham, 1998). 인터넷에 중독되면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PC통신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므로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진다.

* 대구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교신저자 김순구 : heatha@hanmail.net

그러므로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학습능률이 떨어지고 인터넷 서버에 접속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면서 쾌감을 느끼며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된다(김주한, 1996).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동의 무분별한 인터넷 노출이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므로 가족 및 친구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을 유발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 폭력성 및 성적 충동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아동을 성폭력자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청예단, 2000). 또한 인터넷의 지나친 몰입은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비행, 지위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과 같은 사이버 비행을 경험하도록 유혹하므로(전숙영, 안윤영, 이정숙, 2005),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여러 가지 폭력문제나 비행문제들은 어릴 때의 양육문제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제공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한경자, 2000). 초등학교는 아직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므로 그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하다(이필애, 2000; 전재천, 1999).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면의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개인 차원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K-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인터넷 과다사용 초등학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권장하고 전문 상담기관을 소개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

우 가정이나 학교 외부의 전문 상담자를 방문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해당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및 전문단체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적용과 시기를 같이 하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정, 학교 및 사회가 협력해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 중독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가정 환경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T시에 있는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사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비교적 잘 하는 고학년(4~6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중 조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곤란한 학생을 제외한 66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상자 자신의 인터넷 사용관련 문제를 자각하는 일상생활장애 9문항, 현실구분장애 3문항, 긍정적인 기대 6문항, 금단현상 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5문항, 일탈행동 6문항, 내성 5문항의 7개 하위 항목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4점)로 최저 40점~최대 160점 분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독의 경향성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한다. 고위험 사

용자는 전체총점 94점 이상인 경우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전체 총점 82~93점인 경우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다. 일반 사용자는 전체 총점이 81점 이하인 경우로 인터넷 사용 정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영이(1990)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김영혜와 김순구(2002)가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하기에 적절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측정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정 6문항, 권위주의적 통제 4문항, 합리적인 지도 7문항, 과보호 2문항, 성취 4문항, 적극적 참여 1문항, 일관성 있는 규제 1문항의 7개 하위 항목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5점)로 최저 25점~최대 125점 분포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지수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는 남아가 53.1%였고, 4학년이 32.5%, 5학년이 44.8%, 6학년이 22.8%였다. 형제 수는 2명인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상태는 71.9%가 하위수준이었고, 성적도 64.4%가 하위수준이었다. 아버지가 생존하는 경우가 96.7%,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모두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71.3%, 53.6%로 많았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부모 모두 78.3%, 69.9%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47.6%의 어머니가 싫어하는 반응을, 51.6%의 아버

지는 보통의 반응을 보였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대상자 자신의 방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실이 24.0%였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는 90.6%가 집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PC방이 5.1%였다. 인터넷 이용 시간은 1회 이용 시 1시간 이내가 53.7%, 2시간 이내가 33.1% 순이었으며, 인터넷 이용 횟수는 1주일에 5회 이상인 경우가 37.4%, 3~4회가 24.1%, 1~2회가 23.8%였다. 인터넷의 사용 용도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으며 E-mail이 25.0%, 정보 및 자료검색이 10.0%였다.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60.2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사용이 88.2%로 평균 55.50점이었고, 잠재적 위험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 (N=668)

특 성	구 분	계 N(%)	일반 사용자군 N(%)	과다 사용자군 N(%)	x ²	P
성별	남	355(53.1)	286(42.8)	69(10.3)	2.64	.000*
	여	313(46.9)	303(45.4)	10(1.5)		
학년	4학년	217(32.5)	193(28.9)	24(3.6)	48.74	.458
	5학년	299(44.8)	265(39.7)	34(5.1)		
	6학년	152(22.8)	131(19.6)	21(3.2)		
형제 수	1명	92(13.8)	76(11.4)	16(2.4)	283.60	.118
	2명	425(63.6)	377(56.4)	48(7.2)		
	3명	151(22.6)	136(20.4)	15(2.2)		
경제상태	상	188(28.1)	168(25.1)	20(3.0)	431.05	.181
	하	480(71.9)	421(63.0)	59(8.9)		
성적	상	238(35.6)	214(32.0)	24(3.6)	305.68	.104
	하	430(64.4)	375(56.1)	55(8.3)		
아버지의 존재	생존	646(96.7)	573(85.8)	73(10.9)	582.90	.023*
	사망	22(3.3)	16(2.4)	6(0.9)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476(71.3)	415(62.1)	61(9.2)	320.43	.377
	대졸 이상	192(28.7)	174(26.0)	18(2.7)		
아버지의 학력	고졸 이하	358(53.6)	318(47.6)	40(6.0)	232.49	.574
	대졸 이상	310(46.4)	271(40.6)	39(5.8)		

<표 2> 대상자의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

(N=668)

특 성	구 분	계 N(%)	일반 사용자군 N(%)	과다 사용자군 N(%)	χ^2	P
어머니의 인터넷사용	유	467(69.9)	410(61.4)	57(8.5)	105.92	.644
	무	201(30.1)	179(26.8)	22(3.3)		
아버지의 인터넷사용	유	523(78.3)	462(69.2)	61(9.1)	213.90	.805
	무	145(21.7)	127(19.0)	18(2.7)		
인터넷 오래사용시 어머니의 태도	싫어함	318(47.6)	272(40.7)	46(6.9)	371.27	.006*
	보통	291(43.6)	264(39.5)	27(4.1)		
	긍정적임	59(8.8)	53(7.9)	6(0.9)		
인터넷 오래사용시 아버지의 태도	싫어함	253(37.9)	221(33.1)	32(4.8)	790.27	.905
	보통	345(51.6)	310(46.4)	35(5.2)		
	긍정적임	64(9.6)	55(8.2)	4(0.5)		
	무응답	6(0.9)	3(0.4)	9(1.4)		
컴퓨터의 위치	자신의 방	332(49.7)	288(43.1)	44(6.6)	646.92	.431
	거실	160(24.0)	146(21.9)	14(2.1)		
	부모 방	73(10.9)	65(9.7)	8(1.2)		
	형제 방	68(10.2)	57(8.5)	11(1.7)		
	서재	19(2.8)	19(2.8)	-		
	기타	16(2.4)	14(2.1)	2(0.3)		
인터넷 사용 장소	집	605(90.6)	536(80.2)	69(10.4)	2082.70	.299
	학교	12(1.8)	10(1.5)	2(0.3)		
	PC방	34(5.1)	29(4.3)	5(0.8)		
	친구집	5(0.7)	3(0.4)	2(0.3)		
	무응답	12(1.8)	11(1.6)	1(0.2)		
인터넷 이용시간	1시간 이내	359(53.7)	334(50.0)	25(3.7)	691.72	.000*
	2시간	221(33.1)	200(30.0)	21(3.1)		
	3시간	56(8.4)	39(5.8)	17(2.6)		
	5시간 이상	32(4.8)	16(2.4)	16(2.4)		
인터넷 이용횟수	거의 안함	98(14.7)	95(14.2)	3(0.5)	70.36	.000*
	1-2회/주	159(23.8)	142(21.3)	17(2.5)		
	3-4회/주	161(24.1)	146(21.9)	15(2.2)		
	5회 이상/주	250(37.4)	206(30.8)	44(6.6)		
인터넷 이용 용도	게임	372(55.7)	305(45.7)	67(10.0)	1646.46	.000*
	채팅	27(4.0)	25(3.7)	2(0.3)		
	정보/자료검색	67(10.0)	62(9.3)	5(0.7)		
	E-mail	167(25.0)	164(24.6)	3(0.4)		
	음란물	1(0.1)	-	1(0.1)		
	동아리활동	9(1.3)	9(1.3)	-		
	소프트웨어다운로드	7(1.0)	6(0.9)	1(0.1)		
	외국어 및 교과학습	9(1.3)	9(1.3)	-		
무응답	9(1.3)	9(1.3)	-			

사용이 7.3%로 평균 87.22점이었으며, 고위험 사용이 4.5%로 평균 110.10점으로 과다 사용의 비율이 달랐다(P=.000).

4.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른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도는 <표 4>와 같이 차이가

<표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N=668)

인터넷 사용 정도	인터넷 중독				
	Score range	N(%)	Mean±S.D.	F	P
일반 사용자	40~ 81	589(88.2)	55.50±10.37	576.50	.000*
잠재적 위험 사용자	82~ 93	49(7.3)	87.22± 3.81		
고위험 사용자	94~160	30(4.5)	110.10±15.90		
전체	40~160	668(100.0)	60.28±17.09		

* P< .001

<표 4>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

(N=668)

인터넷 사용 정도	어머니 양육행동			
	N(%)	Mean±S.D.	F	P
일반 사용자	589(88.2)	54.12±13.89	10.953	.000*
잠재적 위험 사용자	49(7.3)	60.53±10.25		
고위험 사용자	30(4.5)	63.43±13.93		
전체	668(100.0)	55.01±13.87		

* P< .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는 55.01점으로 중간 정도였으며, 일반적인 사용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평균 54.12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어머니는 60.53점, 고위험 사용자 어머니가 63.43점으로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0).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 사용 정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는 <표 1>과 같다. 인터넷 중독은 4.5%로 빈도수가 적으므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와 합하여 과다사용자로 제시하였다. 일반 사용자와 과다 사용자의 비율은 성별과 아버지의 생존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남아 중에서 일반사용자군은 42.8%, 과다 사용자군은 10.3%인 데에 비해 여아는 일반사용자군이 45.4%, 과다사용자군이 1.5%로 과다 사용의 비율이 성별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달랐다(P=.000). 아버지가 생존하는 경우 일반사용자군은 85.8%, 과다 사용자군은 10.9%, 아

버지가 사망한 경우 일반사용자군은 3.3%, 과다 사용자군은 0.9%로 아버지의 생존여부에 따라 과다 사용 비율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P=.023).

6.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 사용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과다 사용 정도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사용과 과다 사용의 비율은 인터넷 오래 사용 시 어머니의 태도,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횟수, 인터넷 이용 용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일반사용자군의 어머니는 싫어함 40.7%, 보통 39.5%, 긍정적임 7.9%였으나 과다사용자군의 어머니 반응은 싫어함 6.9%, 보통 4.1%, 긍정적임 0.9%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6).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일반사용자군은 하루에 1시간 이내가 50.0%, 2시간이 30.0%, 3시간이 5.8%, 5시간 이상이 2.4%였으며, 과다사용자군은 하루에 1시간 이내가 3.7%, 2시간이 3.1%, 3시

간이 2.6%, 5시간 이상이 2.4%로 이용 시간에 따라 집단 간에 비율이 달랐다($P=.000$). 인터넷 이용 횟수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은 1주일에 5회 이상이 30.8%, 3~4회가 21.9%, 1~2회가 21.3%, 거의 안한 경우가 14.2%였으며, 과다사용자군은 1주일에 5회 이상이 6.6%, 1~2회가 2.5%, 3~4회가 2.2%, 거의 안함이 0.5%로 인터넷 이용 횟수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인터넷 이용 용도는 일반사용자군은 게임이 45.7%, E-mail 이용이 24.6%, 정보 및 자료검색이 9.3%였으며, 과다사용자군은 게임이 10.0%, 정보 및 자료검색이 0.7%, E-mail 이용이 0.4%로 이용 용도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

7.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은 약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r=.218$, $P=.000$).

<표 5>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양육행동	$r=.218^*$		$P=.000$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7.3%가 인터넷 잠재적 위험 사용, 4.5%가 인터넷 중독으로, 11.8%가 인터넷으로 생활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과다 사용이 27.9%, 인터넷 중독이 0.5%였던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2005)의 연구와 중학생의 인터넷 과다 사용이 14.9%였던 홍경희(2002)의 연구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터넷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이송선, 2000)로 볼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중독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4.5%로 빈도수가 적어 인터넷 잠재적 위험 사용자와 합하여 과다사용자로 제시하였는데, 과다사용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반 사용자군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과다사용자의 경우 남아의 10.3%가 인터넷 과다사용인데 비해 여아는 1.5%가 과다사용이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문영임 등, 2005; 오원옥, 2004; 이세용, 2001; 이송선, 2000; 조영란, 2003; 최병호, 2004; 홍경희, 2002; Griffiths, 1991)에서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계로서 컴퓨터에 훨씬 더 익숙한 반면 여학생은 기계를 다루는 전자게임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Provenzo, 1992).

또한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은 일반 사용자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게임, E-mail, 정보 및 자료검색, 채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 반면 과다 사용자군은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가 중독 성향이 강한 인터넷 게임에 활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중독의 위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 과다 사용 대상자들은 일반 사용 대상자들에 비하여 인터넷에 한번 접속하면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일주일에 5회 이상 접속하는 비율도 높으므로 거의 매일 인터넷을 장시간 탐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는 아버지의 생존 여부와 인터넷 사용 시 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인터넷 과다 사용자군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어머니가 싫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 집에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아동이 인터넷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이들은 이미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자기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아동의 양육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잔소리가 아동의 행동을 변화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함의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컴퓨터를 폐쇄된 자신의 방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가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아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인터넷 이용 시간과 횟수를 정해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정도를 중간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과다사용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간에 약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진태, 2003)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할 경우 인터넷 중독의 경향이 낮아지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꾸중하거나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인터넷 중독의 경향이 높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반복 연구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경우 그들은 아동에게 더 많은 자기

선택과 책임을 부여하는데, 중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자기조절력이 있어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수용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통제를 귀찮은 잔소리로 받아들여 반항심으로 표출하고 더욱 더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부모는 아동의 반항심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아동이 교과학습, 자료 및 정보검색, E-mail,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의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생리, 안전 및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킨다(Suler, 1996). 인터넷에 중독된 아동은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여 다양한 연령의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모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를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의 친구관계 유지는 현실에서의 친구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므로, 초등학생이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어들게 하고 아동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하여 인터넷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Wallther, 2000). 그러므로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았다는 문영임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특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컴퓨터를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 가능한 게임을 적게 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관심 및 지도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강원도 T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생 668명 으로부터 인구조적 특성, 인터넷 이용 특성, 인터넷 중독, 그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일반적인 사용이 88.2%였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이 7.3%, 고위험 사용(인터넷 중독)이 4.5%였다.
-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용과 과다사용 비율은 성별, 부친의 존재, 인터넷 오래 사용 시 어머니의 태도,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횟수, 인터넷 이용 용도 등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은 약한 순상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에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11.8% 정도로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

한 문제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효과적인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인터넷 중독 아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 아동의 경험을 밝히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 인터넷 중독을 극복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극복 과정을 밝히고 간호 중재 및 이론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이 (199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김순구 (2002).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5(1), 24-37.
- 김주한 (1996). 인터넷 신드롬. 서울: 과학동아.
-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3), 263-272.
- 오원옥 (2004). 고학년 초등학교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실태 및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3), 282-290.

- 이세용 (2001).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보도자료.
- 이송선 (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필애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안윤영, 이정숙 (2005).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연구, 9(3), 489-505.
- 전재천 (1999).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부 뉴스 (2005). 한국, 초고속인터넷 보급 OECD국 중 1위. 정보통신부뉴스 2005년 5월 29일자.
- 조영란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측 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청예단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폭력예방단체 보도 자료.
- 최병호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 및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자 (2000). 아동양육과 간호역할.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3(1), 95-10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정보통신부.
- 홍경희 (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riffiths, M. D. (1991). Amusement machine play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 comparatative analysis of video game fruit machines. Journal of Adolescence, 14, 15-73.
- Markham, A. N. (1998). Life online : researching real experience in virtual space. Walnut Creek, CA, Altamira of Mood states on social judgements in cybers pace. <http://www.grohol.com>.
- Provenzo, E. F. (1992). Video kids; making Nitendo.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uler, J. (1996). The psychology of cyber space. <http://www.rider.edu/~suler/psycyber/psycyber.html>.
- Wallther, J. B. (2000).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Working paper,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 North Western University.

ABSTRACT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Maternal behavior, Child rearing

The Relation to Perceive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Internet Addiction in the Upper Year Grade Students

Kim, Soon Gu* · Lee, Mi Ryon*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 to perceive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in the upper year grade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which perceive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This study population was comprised of 668 students who enrolled 4~6 year-grade in Kwangwon-Do.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of subjects was rather low. Of the children, 88.2% reported being average on-line users,

7.3%, heavy on-line users, and 4.5%, internet addicted. Gender, existence of father, mother's attitude when child overuse on-line, average playing time of on-line per day, frequency of on-line visits per week and purpose of on-line use for average on-line users were different from that of heavy on-line users. The level of perceive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were abbreviate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in subjects. **Conclusion:** We suggest these results be used to develop a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